호남권 산단 입주 116개업체

광주서 961명 채용박람회

13일 김대중센터서… 현장 면접 즉시 채용

호남지역 산단입주 기업들이 대규모 인력채용에 나선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는 "오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인력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며 수도권·동남권·충청권·대경권에 이어 다섯번째다.

호남권 채용 박람회에는 디케이산업·나눔테크·파루·서울반도체 등 광주와 전남·북 산업단지에 입주한 116개 업체가 참가해 신입·경력 직원 961명을 선발한다. 모집분야는 관리사무(89명)·연구개발(72명)·영업(23명)·기술(115명)·생산(631명) 등이다.

상당수 기업은 현장에서 면접을 거쳐 사원을 뽑을 예정이다. 구직자는 채용 박람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icoxjob.or.kr)를 통해 사전접수하고, 행사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준비해 면접을 치르면 된다.

공단 호남권본부는 일반 채용면접관 외에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관, 이공계 우수인력 지원관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한다.

또 행사장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직업 심리검사와 이력서 작성, 면접 이미지 컨설팅, 무료 취업증명 사진 촬영 등 각종 컨설팅도 제공한다. 공장설립 지원관에서는 제조업 창업 희망자에게 기업 설립 절차를 알려준다.

김흥수 공단 광주지사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는 인력난"이라며 "채용 박람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해 기업들의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을 동시에 해소하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채용 박람회 사무국 02-6300-5934.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호남권 주요 채용기업 〈20인 이상〉

회사명	모집직종	인원	근무지
서울반도체(주)	사무·생산	32	광주첨단
(주)피피아이	연구·생산	22	광주첨단
다인테크	생산직	25	광주첨단
케냐에스프레소(주)	바리스타	20	광주
(주)와이에스피	생산직	30	광주평동
(주)서광	생산·관리	22	장성동화
제이와이중공업(주)	생산·관리	133	군산
(주)정다운	생산·관리	29	나주
우주건업(주)	토목·건축·조경	20	여수
(주)더리즈	연구·생산	130	광주

짐 챙(가운데) 미국 버지니아 주 상무장관 일행이 지난 3일 광주시 북구 첨단산업단지 내 SDN(구 서울마린)을 방문해 최기혁 SDN 사장 등 임원들과 투자유치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美, 광주기업에 투자 요청

버지니아 주 상무장관일행 SDN 방문

짐 챙 미국 버지니아 주 상무장관 일행이 지난 3일 투자유치를 위해 광주 첨단산업단지 내 SDN(구 서울마린)(주)를 방문했다.

짐 챙 장관 일행은 이날 최기혁 SDN 사장 및 임인철 SDN 연구소장 등과 국내외 태양광 시장의 발전 전망 등을 논의한 뒤 SDN이 갖추고 있는 태양광 설비 등을 둘러봤다.

짐 챙 장관은 SDN 측에 부지 제공 및 보조금 확대, 세제 혜택 등을 제시하며 버지니아 주 인근에 광주 SDN 공장 규모의 투자를 요청했다.

특히, 짐 챙 장관과 함께 방문한 한국계 2세 이형모(James H. Rhee) 버지니아 주 상무부 차관은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SDN 측에 투자에 나서줄 것을 적극 권유했다.

최기혁 SDN 사장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산실인 미국에 공장을 두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 업체인 SDN은 태양광 발전소 설계 및 시공 전문업체로 지난 2월 불가리아 45MW급 2,200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국내 최초로 수주해 태양광 플랜트 시장을 개척한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백화점, 월드컵·무더위 특수

아웃도어 등 소비심리 회복

6월 매출 두자릿수 신장률

월드컵 특수와 더운 날씨에 힘입어 지역 백화점들이 6월 두자릿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14.4% 늘었다.

월드컵 열기와 더운 날씨에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아웃도어 상품 매출이 30.3%나 증가했으며, '쿨 비즈'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남성캐주얼 매출도 20.5% 늘었다.

또 지난달부터 시작된 명품 브랜드의 '시즌오프'(정기세일에 참여하지 않는 브랜드가 진행하는 가격인하) 행사가 진행되면서 해외명품도 32.7%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신사복(9.6%)을 비롯한 여성정장(21.5%), 화장품(14.7%), 잡화(15.2%) 등 대부분 상품군의 매출이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같은 기간 매출이 10.0% 증가했다. 스포츠 상품군 매출은 9.0% 증가했으며 TV 등 가전 상품군도 14.0% 늘었다.

현대백화점은 전(全) 점을 기준으로 아웃도어(28.8%), 스포츠(27.3%) 상품이 잘 팔리면서 10.2%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업계도 월드컵·무더위 특수를 누렸다. 이마트에서는 지난해 동기보다 전 점 기준 9.9% 매출이 증가했다. 축구용품 매출은 20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맥주는 50.2%, 치킨은 48.4% 더 많이 나갔다.

홈플러스도 전 점 기준으로 11.5%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고, 롯데마트는 전점 기준으로는 28.4% 매출이 늘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光銀, 은행사 박물관 설립 추진

광주·전남 금융 관련 자료를 한데 모은 은행사(史) 박물관이 광주에 들어선다.

광주은행은 "창립 42주년을 맞아 지역 금융역사를 조망하는 'KJB 금융사 박물관'(가칭)을 설립키로 하고 개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사업비는 10억~12억원으로 예상되며 박물관 설립을 위해 별도 건물을 짓는 것 보다 광주은행 본점 등지에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송기진 행장이 지역 금융 뿌리찾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송 행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6월 안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에는 광주·전남지역 금융사 관련 인물·사진·기록물과 세계 각국의 다양한 화폐 등을 소개하는 코너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우량주 저가메리트 부각

기술적 매매 관심 가져야

■ 주간 증시 포커스

지난 6월 국내 증시는 전세계 증시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7월초에 들어선 이후 그 성과를 이어지가 못하고 있다.

호성적이 기대되는 2분기 기업실적에도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긴축정책이 하반기 글로벌 경제회복 및 기업실적에 부정적 변수로 떠오른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실적발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전망이라는 점에서 증시에 결정적 상승 동력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시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내부적인 수급요건도 쉽사리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중반 코스피지수가 1,700선을 회복한 이후로 본격적인 매도세로 전환한 외국인들은 여전히 적지 않은 규모의 주식을 팔고 있는데다, 때맞춰 급증하고 있는 국내 주식형펀드의 자금이탈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주 금요일로 예정돼 있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불확실성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 국내 증시에서 상당 기간 동안 코스피지수가 1,700선이라는 가격저항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목해야할 것은 무엇보다도 가격변수이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차별화 양상이 크게 완화될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정 수급구도를 배경으로 신고가 경신을 이어왔던 종목들은 대부분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좋기는 하지만, 실제 실적규모에 비해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실적발표를 전후로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유의해야겠다.

반면, '키맞추기' 국면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우량기업들의 저가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원재료가격 상승에 발목이 잡혔던 철강주나 업황부진의 지속으로 반등탄력이 약했던 조선주가 지난 주말 일제히 강세를 기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은 기술적인 키맞추기 성격의 흐름은 지수가 갇혀있는 국면에서 좀더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번주로 예정된 주요 이벤트는 삼성전자의 실적발표와 한국은행의 금통위 개최이지만 양쪽 모두 강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금리인상이 결정될 경우 시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영향도 예상된다. 따라서 시장의 접근은 철저하게 가격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적인 판단의 선행이 요구되며, 매수대응은 시장 지지력의 확인 이후로 미루는 접근을 권한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